2018312567 조명하

1. 논문 요약

기형도는 우울한 영혼의 풍경화를 노래한다. 특히 등단작인 「안개」에서 “안개”는 ‘체념, 무관심, 자포자기, 고독’ 혹은 ‘텅 빈 희망’ 등을 상징한다. 이처럼 이 바라보는 세계는 어떠한 희망도, 기쁨도 보이지 않는 우수의 세계다.

기형도는 의도적으로 “검은” 이미지를 죽음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리 나리 개나리」에서는 “검은”이 죽음과 직결되는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에서 그것은 당대의 현실 세계나 내면세계가 황폐하기 그지없었음을 보여 준다.

그의 기억 속에 고통으로 각인되어 있는 유년의 ‘가난’이 그에게 주었던 아픔들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어린 날의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작은누이의 때 이른 죽음이 그에게 남긴 트라우마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군사정권 시절의 절망적인 정치 상황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자포자기적인 절망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의 혀를 지배하던 삶에 대한 권태 때문이었는가?

기형도는 상처받기 쉬운 특유의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한층 더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29살에 이르기까기 기형도는 한순간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의 시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질문, 문제제기

기형도의 삶에서 ‘죽음’이 트라우마로 남아 시에서도 죽음의 이미지가 많이 드러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시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인간은 모두 소멸하는 존재이기에 죽음에 민감했던 기형도가 시에서 자신의 죽음의 형식을 예비해 두었다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35세에 죽는 사람은 그의 생의 모든 점에서 35세에 죽은 사람이다.’는 말을 가져와 기형도의 모든 시에서 ‘자살’의 기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작품과 인물을 가져와 기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해석으로는 존중할 수 있으나 기형도가 실제로 『길가메시, 오디세이아, 일리아스』 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므로 위의 문서들에서부터 ‘죽음’과 ‘안개’가 연결되었으며, 그것이 기형도의 ‘안개’라는 상징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형도를 ‘죽음의 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죽음’과 ‘안개’에 집중할 뿐, 왜 ‘새’인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 왜 ‘새’라고 비유했는지 궁금하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죽음의 새’라는 표현보다 고대 그리스의 개념, 역사적, 문학적 기록들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 현대판 헤르메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